

2012년 헬싱키 세계도서관대회 (WLIC) 참가기

성진석_한국농촌경제연구원

1. 머리말



2012년 제 78차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는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렸다. 이번 WLIC의 주제는 “도서관은 영감, 경이로움, 역량강화(Libraries now! Inspiring... surprising... empowering)”로 개최되었다. 이번에는 처음으로 한국도서관협회(이하 도협)에서 진행하는 연수단과는 별도로, 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이하 KSLA) 공식대표단으로 참가하였다. 도협에서 참가안내 공문이 도착했을 때 KSLA 임원진에게 KSLA 독자적인 연수단을 모집하여 참가하는 건에 대해 상의한 결과,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긍정적인 결론을 얻어 회원기관에 참여의향조사 공문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처음 시도하는 연수단이어서인지 참여의사를 표한 기관이 총 5개 기관이었는데, 신청하는 시점에서는 1개 기관이 사정상 불참의사를 표하여 4개 기관으로 연수단이 꾸러졌다. 이번에 독자적으로 꾸미려고 했던 이유는 행사참여와 도서관 방문 등을 보다 알차고 자유롭게 하기 위함이었는데, 당초 목표한대로 충분히 달성했다고 자부한다.

이번 KSLA 대표단은 필자가 근무하는 연구원을 비롯하여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오정훈 이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강소선 이사, 한국조세연구원의 김경철 팀장 총 4개 기관에서 4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밖에 KSLA 회원기관 중에서 참가한 기관은 통일연구원, 회원이 참가하였고, 회원은 아니지만 참가한 전문도서관은 한국개발연구원, 외교안보연구원, 연구원이 함께 하였다. 여행의 전반적인 일정은 도협의 행사 중 A코스의 일정을 참고하여 정하였고, 방문도서관을 선정할 때 핀란드와 인접국인 러시아 상페테르부르크의 러시아 국립도서관을 추가로 방문할 계획을 세웠다. 항공권 예약과 러시아 국립도서관 방문을 위한 비자발급 및 가이드 섭외를 제외하고 모든 일정을 KSLA 대표단에서 자체적으로 예약하고 준비하였다.

KSLA 연수단은 8월 10일 오전에 도협 연수단과 같은 비행기를 타고 출발하여 9시간 후에 헬싱키 반타공항에 도착하였다. 작년 푸에르토리코의 산후안에서 열릴 때 보다 참가인원수가 더 많다고 하였다. 공항에서 안면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연수기간 내내 도움 받을 일들이 많은 도협 대표 인솔자에게도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인사도 나눴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코노미 클래스에서 보내는 비행시간은 참으로 괴롭다. 큰 덩치에 비해 좁은 좌석 때문인지 소화가 안 되고 술 마시면 잠을 잘 잘 수 있을 것 같아 와인을 여러 잔 마셨는데도 정신만 또렷하여 잠도 거의 자지 못하고 9시간을 비행한 끝에 반타공항에 도착하였다.

공항에 도착하여 짐을 찾고 보니 운이 없게도 필자의 가방 손잡이가 부러져서 공항 창구에서 Baggage claim을 접수하고, 입국심사장을 빠져나왔다(나중에 더 좋은 새 가방으로 교환하게 되어 결국은 전화위복 된 셈이다). 도협 연수단과 함께 행사가 열릴 헬싱키 컨벤션 센터까지 전세버스를 타고 이동하여 사전등록을 완료한 후 우리 대표단 4인은 도협 연수단과 헤어져 예약한 호텔로 이동하여 짐을 풀고 하루를 마감하였다.

이번 행사가 열리는 헬싱키 컨벤션센터는 트램과 지하철을 이용해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교통이 편리하고, 시내 중심가에서는 약간 떨어져 있으나(지하철로 10분(?) 조용하고, 대회를 치르는데 무리가 없을 정도로 넓었다. 또 자원봉사자들이 WLIC의 주요행사외 도서관 방문시 집결 장소 등에 대해 친절하게 알려주었다.

이번 연수단의 일정은 핀란드의 도서관을 하나 더 방문하기 위해 개막식 이틀 전에 출발하여 도착하였기 때문에 우리 연수단에서는 대회 이틀째 8월11일 낮에는 핀란드 옛 수도인 투루쿠(Turuku)를 방문하여 투루쿠 대학도서관과 도시의 유적지를 둘러볼 수 있었다. 투루쿠는 전통적인 수도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데, 도시 한복판을 조그만 강이 지나가고 전통과 현대의 모습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도시였다. 이틀째인 8월 11일 저녁에 있을 한국어 참가자 모임과 도협 주최의 한국어인의 밤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서둘러 헬싱키로 돌아왔다.

2. 주요 참가행사

■ 한국어 언어별 모임과 한국인의 밤

컨벤션센터에서 한국어 참가자 모임에 가서보니 도협회장을 비롯한 직원들, 신기남 명예회장 부부, 국립중앙도서관장을 포함한 직원들, 국회도서관 직원, 전국의 공공도서관 관장, 일선 도서관의 사서선생님 등 다양한 지역의 사서들이 함께 참가하였다. 참가자 수로만 본다면 한국도 다섯 손가락 안에 들만큼 많은 인원이 참가한 나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남태우 도협회장의 인사와 이번 도서관대회의 한국인 발표일정, 인제대 박재섭 도서관장의 WLIC 참가에 대한 의미와 업무혁신사례 발표와 들을만한 세션에 대한 소개 등이 끝나고, 한국인의 밤 행사가 열리는 헬싱키 시내 레스토랑으로 이동하였다. 이번 헬싱키에서는 도협에서 처음으로 한국인의 밤 행사를 위해 별도 장소를 임대하여 참가자들 간에 인사도 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 아주 고맙고 인상적이었다. 간단한 다과와 와인도 함께 즐길 수 있었는데, 북유럽의 비싼 물가를 고려하면 상당한 지출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었다.



〈사진 1〉 투루쿠대학 도서관(좌), 헬싱키 중앙역앞 우체국에 있는 공공도서관(우)



〈사진 2〉 한국인의 밤



〈사진 3〉 컨벤션센터 앞에서 도협회장님과 함께(좌), 한국인의 밤 행사(우)

■ 개막식

연수 3일째 되는 8월 12일 일요일에 컨벤션센터에서 개회식이 열렸다.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에서 약 4,000여명의 도서관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총 218개의 분과회의와 오픈세션, 비즈니스미팅, 라운드테이블로 행사가 진행되었다. 개막식장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많은 참가자들로 가득 메워졌고, 분위기는 뜨거웠다. 각종 디지털 장비로 사진촬영을 하고, 특히 아이패드나 스마트폰으로 현장의 분위기와 기조연설 등을 촬영하는 참가자들이 눈에 띄었다. 이번 대회의 회의세부 주제는 다음과 같다.

주제	내용
트랙 1	Open access and digital resources (오픈액세스와 디지털 자원)
트랙 2	Policy, strategy and advocacy (정책, 전략, 그리고 옹호)
트랙 3	Users driving access and services (이용자를 끌어들이는 접근과 서비스)
트랙 4	Tools and techniques (도구와 기법)
트랙 5	Ideas, innovations, anticipating the new (아이디어, 혁신,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

■ 주제발표

이번 대표단은 사전에 전문도서관 영역에 맞는 주제를 선정하여 시간이 겹치지 않으면 같이 듣고, 겹치는 발표의 경우 각자 관심 분야 발표장에 들어가 다양한 각국의 사례를 들을 수 있었다.



〈사진 4〉 개막식 행사장면(좌)과 개막식장 앞에서(우)



〈사진 5〉 발표장면

필자가 들은 주요 주제 중 최근 KSLA의 발표주제와 관련 있는 발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첫 번째 주제 - 구글 세대로 우리를 필요로 한다(Generation Google needs us: 세션 98)

이 세션에서는 KSLA의 세미나에서도 언급된 적이 있는데, 구글 세대가 불리는 새로운 디지털 세대에게 정보서비스 영역으로서의 도서관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발표하고 토론하였고 여러 가지 사례 발표를 통하여 디지털 세대를 위한 도서관 변화의 필요성을 모색하였다.

가. 정보 - 유실과 발견 - 도서관 참고서비스의 새로운 모델

Information "Lost and Found" - new models for library reference service / RAUHA MAARNO(e-Library Unit, Helsinki City Library, Helsinki, Finland)

이 발표에서는 공공도서관에서의 참고서비스의 변화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2001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헬싱키 시립도서관의 웹 참고서비스인 'Ask Anything'는 일 년에 백만 건 이상의 방문자 통계를 가지고 있으며 10,000건 이상의 답변 자료를 구축하여 정보의 저장소에서 지식 플랫폼으로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온 성공적인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2001년 빌게이츠 재단의 기금을 받아 시작한 시립도서관의 웹 참고서비스 사이트는 현재 도서관의 매우 중요하고 일상적인 서비스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으며, 도서관 사서의 중요한 업무가 되었다. 또한 이렇게 구축된 지식 아카이브는 일상적인 질문에서부터 전문적인 학술정보까지 70,000건 이상의 방대한 정보자원이 되었으며 2003년부터 2개의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되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활용되고 있다. 또한 이용자 편의를 위해 모바일 웹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고, 2012년 10월에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에 기반을 둔 리뉴얼 버전이 공개될 예정이다. 도서관에서의 웹 서비스의 영역을 확장하여 하나의 거대한 지식플랫폼을 구축한 사례로서 매우 인상적이었다.

나. 구글 세대가 '정말로' 우리를 필요로 할까?

Does GENERATION Google REALLY need us? / PETER SIDORKO (University Library, University of Hong Kong, Hong Kong, China) and DIANNE CMOR(Hong Kong Baptist University Library, Hong Kong, China)

이 발표에서는 홍콩대학에서 8년 동안 2년에 한번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 사서가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평가는 계속 저평가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면 최근 도서관에서는 교육에 관한 인력과 노력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이용자의 참고질의는 큰 폭으로 줄어 들고 있다. 연구도서관협회(ARL)의 통계에 따르면 1991년부터 2010년까지 참고 질의 처리건수는 60% 가까이 줄어들었고 반면에 같은 기간 그룹 발표는 138% 증가하였다. 또한 호주의 대학도서관 사서협회(the Council of Australian University Librarians (CAUL))의 2012년도 통계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참고질의 처리 건수는 49.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최신 정보검색기술과 링크 리졸버, 전자정보원의 발달로 사서의 도움 없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환경에서 사서들은 전통적인 참고사서라는 형식에서 벗어나 좀 더 창의적인 방식으로 정보의 가치를 평가하고 이용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변화해야 함을 얘기하고 있다.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각 도서관에서 전통적으로 배치되었던 참고사서 인력을 다른 혁신적인 지원 업무에 재배치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대학도서관에서는 학생들의 커리큘럼을 작성하거나 수업자료를 준비하는 등의 교수학습 업무에 재배치하고, 전문도서관에서는 기관 고유의 산출자료를 평가하고 분석하는 업무에 사서들의 역량을 재투입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발표를 들으면서 도서관과 사서에 대한 역할 변화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이고, 현장사서만의 문제도 아니고 학계와 공동으로 학과 커리큘럼을 개발해야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 현장에서의 참고사서 업무: 도서관 밖에서 사서로 일하기

Reference Librarianship on the Fly: taking the Librarian out of the Library / SARA WINGATE GRAY(University College, University of London, San Francisco, California, USA)

이 발표에서는 디지털 컬렉션의 증가로 도서관의 역할과 의미가 많이 변화하였지만 인쇄책의 요구와 필요성도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였다. 또한 전자책에 대한 법, 제도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은 스웨덴의 환경에서 도서관이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하고 방대한 매체 정보를 디지털 자원과 물리적 자원의 간격을 도서관에서 이어주는 역할을 시도해보는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향후에도 도서관은 하나의 브랜드로서 이용자들의 만남과 정보습득의 물리적 공간으로서 역할을 계속 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 도서관에서는 여러 가지 최신 기술, QR코드, 사진 기술 등에 대한 최신 동향을 가르치고 도움을 주는 공간을 만들어 운영하였는데,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구현한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사서들이 출판기획과 홍보, 도서관 방문자 수를 늘리기 위한 수많은 시도들을 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

▶ 두 번째 주제 - 데이터 큐레이션, 접근과 보존에서 도서관의 역할(The role of libraries in data curation, access and preservation : 세션 116)

가. 독일에서 연구데이터의 보존과 큐레이션에서 도서관의 역할: 조사결과

The role of libraries in curation and preservation of research data in Germany: findings of a survey / ACHIM OSSWALD(Cologne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Institute of Information Science, Cologne, Germany) and STEFAN STRATHMANN(Competence Center on Digital Preservation and Research Data, Goettingen State and University Library, Goettingen, Germany)

최근 몇 년 동안 연구데이터의 큐레이션에 대한 이슈는 과학기술분야에서 큰 관심이 되고 있다. 그러나 연구데이터를 어떻게 다루고 큐레이트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는 아직 연구 중에 있다. 도서관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와 합의도 아직까지는 없었는데, 독일에서 기초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 연구에서 과학자, 서비스 전문가, 정책결정자들에게 여러 학문 분야의 디지털 큐레이션에 대한 전략적 개념과 보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성과가 있었다.

연구결과에서 도서관과 데이터 센터는 연구데이터의 보존과 큐레이션에 관련이 있지만 도서관이 이 분야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거나 할 것이라는 분명한 단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연구자 혹은 과학자들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도서관이 디지털 큐레이션과 보존에 있어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담당할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연구데이터와 관련한 메타데이터 표준이나 서비스 기준 같은 중요한 문제에서 그동안 도서관의 역량은 이미 충분히 증명되었지만 도서관의 전문성을 더 요구할 수 있다. 연구데이터의 큐레이션에 대한 자격증명과 훈련이 시작되고 있지만 향후 대학에서 커리큘럼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시점에서 변화의 시작은 현장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하겠지만, 미래 사서를 배출하는 대학에서 새로운 학문융합 등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커리큘럼 개발이 절실한 시점이다.

나. 캐나다의 국가 연구데이터 이니셔티브

National Research Data Initiatives in Canada/ LYNN COPELAND (Simon Fraser

University Burnaby, British Columbia, Canada) and BRENT ROE(Canadian 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Ottawa, Ontario, Canada)

이 발표에서는 연구데이터 큐레이션과 보존에 관해 캐나다 연구도서관협회(CARL)와 캐나다 과학기술정보연구원(CISTI)의 주요활동을 소개하였다.

CARL은 2010~2011년에 국가 지원 연구프로젝트의 산출데이터 보존사업을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자문과 토론이 이루어졌다. 다양한 학문분야의 연구자들, 기금 에이전시의 자문단, 국가 IT 그룹, 그 밖의 기관이나 대학연구자 등 포커스 그룹들이 캐나다 국가 연구데이터 큐레이션과 보존의 전략과 서비스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개별 도서관들의 활동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는데 일조했다. 이 사업은 핵심적인 관련 기관들(IT 관련기관, 도서관, 정부, 대학, 캐나다 아카이브, CISTI)의 참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고 연구데이터의 이용, 큐레이션, 보존에 있어서 IT 기관들과의 파트너십에 있어서 도서관의 핵심적인 역할에 대한 윤곽을 마련해주었다. 이 과정에서 CARL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현재 캐나다에서는 CARL, CISTI, 국가 IT 기관 및 여러 도서관에서 많은 연구데이터 관련 사업들이 수행되고 있다.

■ 포스터 세션

이번 대회 포스터 세션에서는 196개의 포스터가 전시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인제대학교 학술정보관에서 유일하게 참가하였다. 주요 참여국은 개최지가 유럽이라 핀란드를 포함한 북유럽, 유럽, 미국, 캐나다가 전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아시아권에서는 중국이 7개, 일본이 4개, 이란이 2개, 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우크라이나, 인도, 팔레스타인 자치구에서 각 1개씩 전시하였다. 다양한 유무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도서관 서비스 사례, 전자책 서비스에 관한 실적 등 우리나라에서 소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성과들이 있는데, 많은 참가단에 비해 발표와 포스터 전시가 적어서 약간 아쉬움이 있었다.



〈사진 6〉 포스터세션 자원봉사자(좌)와 전시 포스터들(우)

3. 도서관 방문

우리 대표단에서는 시간 나는 데로 여러 도서관들을 둘러보고자 노력했다. 뚝루쿠 대학도서관, 수오멘리나 도서관, 러시아 상페테르부르크에 있는 국립도서관, 핀란드 국립도서관, 그 외 시내 곳곳에 있는 다양한 공공 도서관들을 둘러보았다. 그 중 인상적인 몇 군데를 소개하도록 한다.

■ 수오멘리나 도서관

수오멘리나 섬은 헬싱키 마켓광장에서 배로 15분 거리에 있는 UNESCO 지정 세계문화유산이다. 러시아의 침략에 대비하여 지은 요새이다. 이 섬에는 약 8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 도서관은 헬싱키에서 가장 작은 도서관으로 복사기, 스캐너 등 디지털 장비를 구비하고 있으며, 인터넷 접속 서비스는 예약제로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주로 인터넷 이용을 위해 방문한다고 한다. 담당사서(1인)는 개관일에 맞춰 헬싱키 마켓광장에서 페리로 출퇴근하며 근무하고 있었다. 비록 규모는 제일 작았으나, 이용자가 있는 곳이라면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마인드는 인상적이었다.



〈사진 7〉 수오멘리나 작은 도서관 전경

▶ 러시아 국립도서관(Российская национальная библиотека)

상트페테르부르크(Saint-Petersburg)에 위치한 러시아 국립도서관(Российская национальная библиотека)은 1795년 Catherine II 세에 의해 건립되었다. 약 20여 년간의 걸쳐 건축된 국립도서관은 모든 러시아 도서와 자료를 보존할 수 있는 도서관 설립을 통해 러시아제국의 국력을 보여주하고자 하는 의도로 만들어졌다. 이 도서관 방문은 이번 연수단에게 가장 강렬한 기억을 남겨준 도서관일 것이다.

헬싱키 WLIC의 인근국가 공식 방문도서관으로 지정되어 있고, 이 도서관 관계자가 대회조직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에 들어가기부터 만만치 않았다. 당초 여행사로부터 방문허락을 받았다는 확답을 받고 러시아로 갔는데, 그 도서관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비용을 내야한다는 가이드의 얘기를 듣고 황당했다. 처음 국립도서관의 Main Building에서 방문을 거절당한 후 그 옆 Directorial Office로 옮겨서 담당자 면담을 요청했더니 몇몇 관

런자들이 나와서 자기네들끼리 뭔가를 얘기한 뒤 어렵게 방문을 허락받았다.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선물이 한 몫을 했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처음의 딱딱한 분위기와 달리 일단 허락한 후에는 아주 친절하게 구석구석을 보여주는데, 모든 자료실과 사무실이 조그만 방으로 이뤄져 미로처럼 얽혀 있었다. 앞사람을 잘 따라가지 않으면 건물 안에서 길을 잃겠다는 생각을 했다. 특히 프랑스의 귀족이 기증한 1700년대 고전들을 전시한 고문서 방에서 담당 사서가 우리가 동양에서 왔다고 중국관련 문헌을 여러 가지를 뽑아서 상세하게 설명하는데, 그 열정과 정성에 감동하기도 했다.



〈사진 8〉 러시아 국립도서관 관계자들



〈사진 9〉 열람실 및 고문헌 전시실

러시아 상페테르부르크는 전반적으로 과거 제정 러시아 피터 대제가 도시를 건설한 이후 역사적인 건물과 전통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도시이다. 건물은 고풍스럽고 광활한 영토 때문인지 건물하나하나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웅장했다. 다만 사람의 표정이나 행동이 과거 공산권의 경직된 사회분위기 탓인지 경직되고, 감시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다. 국립도서관 신관에 갔을 때 경찰제복 입은 직원이 입구를 지키고서 안으로 들여 보내주지 않아 그것을 확인할 수 없었다. 신관은 보존보다는 이용자 서비스를 위해 지은 건물이라 더욱더 황당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러시아 도서관 방문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담당 사서들의 친절한 안내도 받고, 사진까지 찍을 수 있었던 것은 이번 연수단의 큰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핀란드 국립도서관(National Library of Finland) 방문

대회 마지막 날인 8월 17일 공식 도서관 방문지로 핀란드 국립도서관을 방문하였다. 핀란드 국립도서관은 헬싱키 대학의 독립된 기관으로써 가장 오래되고 큰 학술 도서관이다. 1640년 스웨덴 통치시절 핀란드 투루쿠 시에 핀란드 대학이 설립되면서 함께 만들어졌다. 1840년 화재로 도서관을 투루쿠에서 헬싱키로 이전을 결정하였고, 1840년 건물을 완성하였으며 1845년 출판물의 납본제 법률을 제정하였다. 스웨덴 통치시절(1707년까지)에 출판된 자료와 러시아 통치시절(1828년까지)에 출판된 러시아 소수민족(슬라브어)자료들 중 1부를 국립도서관으로 이전하도록 하였다. 1917년 핀란드의 독립과 함께 300,000권의 장서가 수집되었고, 1970년에 대출 자동화 및 목록서비스가 시작되었다. 2006년 핀란드 국립도서관으로 명칭개정을 실시하였고, 2008년 문화자료의 수집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을 통해 국가 유산을 보호하고 모든 자료를 망라적으로 수집, 정리, 보존한다. 또한, 지역 도서관들의 중심적 역할과 협력을 담당하며, 국제 협력 등을 총괄하는 임무도 수행하고 있다. 2009년부터 일반인에게 Web Archive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 10〉 핀란드 국립도서관 전경



〈사진 11〉 핀란드 국립도서관 관계자 및 내부 전경

공식 방문단을 맞이하기 위해 핀란드 국립도서관에서는 3시간 동안 국립도서관의 과거, 현재와 미래, 현재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아카이빙 사업 등을 열정적으로 설명해주었다. 특히 인상적인 내용은 문화유산 디지털화 사업을 도서관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데, 실물은 박물관에서 디지털화를, 이용자서비스는 도서관이 담당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국가 데이터 표준과 아카이브 사업에서 도서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생각을 하였다.

4. 맺음말

이번 헬싱키 WLIC에는 KSLA에서 처음으로 공식 방문단을 꾸려서 참석하였다. 사전에 여행사를 선정하고, 숙소예약, 연수단 방문지 섭외, 기념품 제작, KSLA 홍보계획 등 일부 항공권 예약을 제외하고는 모든 일정을 자체적으로 계획하여 실행하였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조정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 거의 완벽한 준비를 통해 목적인 바를 100% 이루었다고 자부한다. 특히 한국조세연구원 김경철 팀장이 꼼꼼하게 세부적인 교통편과 동선까지 모두 파악하여 자료준비를 하는 덕분에 우리 연수단이 큰 어려움 없이 연수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번에 찍은 수많은 사진들을 방문도서관, 포스터 등의 주제를 정해서 사진책자로 인쇄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개인적으로는 2005년도 노르웨이 오슬로 대회 이후 또다시 북유럽 WLIC에 참가하게 되었다. 개최지는 비슷했으나 행사진행이나 참가자들에 대한 배려를 보면 헬싱키가 훨씬 세심하게 배려하고, 꼼꼼하게 준비했다는 느낌을 주었다. 서울의 더운 날씨를 잠시나마 피해서 시원한 북유럽의 정취를 느낄 수 있었던 것도 좋았지만, 친절한 사람들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회시스템 등이 좋은 이미지로 남을 것 같다.

이번 헬싱키 WLIC에 한국에서 100여명의 연수단이 참여하였다. 인원으로 보면 규모가 큰 나라인데 비해 발표나 포스터세션에 참가자 수는 아주 미미한 점이 아쉽다. 특히 도서관 실무책임자나 실무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교류하는 장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최고 관리자가 참가하여 대회 참여보다는 관광에 역점을 둔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 도서관협회에서 연수단을 꾸릴 때 관종별로 방문도서관을 섭외해서 내실 있는 방문이 되도록 기획한다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번 KSLA 연수단에서 어떻게 하면 IFLA 세션에서 적극적으로 한국사서들의 발표를 장려할 수 있을 것인가를 토론하였다. 발표를 꺼리는 가장 큰 원인은 영어로 발표하는 것에 대한 부담, 질의 응답시 영어답변의 문제일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물론 각자가 속한 조직에서 적극적으로 발표를 장려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문제는 우리나라 협회차원에서 발표자를 모집하고 통역을 지원하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발표시간 관계상 순차통역은 힘들기 때문에 동시통역자를 대동하고 발표를 지원하면 한국의 도서관서비스와 정보환경에 대한 많은 성과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내년에는 아시아 싱가포르에서 79회 WLIC가 열린다. 가까운(?) 아시아에서 열리는 대회니 만큼 좀 더 많은 기관에서 참가하고 발표하는 대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특히 아시아 전문도서관협의회와 적극적으로 교류하여 공동으로 행사참여를 기획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지 않을까?